

授業環境의 실태와 개선방향

尹 鍾 健
(韓國外大·教育學)

1. 授業環境이란?

授業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상식적 수준에서 말한다면, 授業은 학생(배우는 사람)과 교수(가르치는 사람)가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해진 시간에 소정의 내용을 함께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授業은 보통 'instruction'의 번역어지만, 교수의 입장에서 보면 'teaching(교수)'이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learning(학습)'이다. 결국 授業은 가르치는 사람(teacher 또는 instructor)과 배우는 사람(learner)이 있어야 하며, 정해진 시간과 공부할 내용이 갖추어져야 성립한다. 따라서 授業은 교육의 한 방법이지만 모든 교육이 다 授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授業은 흔히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이고, 배우는 사람은 많은 경우에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특히 학교와 같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는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대개 계획된 학사일정과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授業을 진행한다. 授業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전에 계획되고 준비된 일정한 학습량을 완전히 학습하도록 해야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授業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좋은 授業이 되려면 좋은 授業環境이 조성되어야 한다.

授業環境이란 授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을 구비하는 것이다. 즉, 교수와 학생이 상호작용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는 것이다. 授業環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결코 좋은 授業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학습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예컨대, 주위가 매우 소란스럽거나 너무 어둡거나 지나치게 춥거나 더운 상황에서는 학생과 교수가 상호작용을 하는 데 방해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흰하게 뿜어 주위가 산만한 環境에서는 교수와 학생이 상호작용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2. 좋은 授業環境의 條件

좋은 授業을 이루기 위한 필요 조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授業環境을 갖추는 일이다. 적절한 授業環境이란 교수와 학생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授業形態를 소화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을 말한다. 좋은 授業環境은 크게 물리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측면에서의 좋은 授業環境이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안락하고 쾌적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授業에 알맞은 시설·설비를 두루 갖추으로써 교수와 학생들에게 육체적으로나 수업 활동과정에서 전혀 불편을 주지 않는 環境을 말한다. 물리적 측면에서의 좋은 授業環境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장시간 앉아 있어도 편안한 책상과 걸상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신체발달상황은 세각기 다르다. 즉,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몸집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함께 모여 공부를 하는 授業의 場에는 그들이 장시간 앉아서 공부를 해도 불편을 느끼지 않을 다양한 크기의 책상과 걸상이 마련되어서 개인차에 맞게 선택,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력에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채광과 조명이 갖추어져야 한다. 授業場의 조명은 지나치게 밝거나 어두워서는 안 된다. 적어도 30~40 축광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밝기가 같아야 한다. 아무리 넓은 공간이라도 밝기의 차가 기준치의 1/3 이하이거나 10배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직사광선도 물론 좋지 않다.

③ 청력장애를 유발하지 않을 만큼 외부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음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授業狀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소리는 최대한 막을 수 있는 環境을 갖추어야 한다. 불필요한 소리는 신경을 자극하여 학습효과를 감소시킨다. 음악수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면 소리의 울림현상도 최대한 규제되어야 한다.

④ 추위나 더위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알맞은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섭씨 16~26°에서 활동하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한다. 이 온도의 한계를 벗어나면 교육효과가 저하되는 것은 물론, 쉽게 피로하게 되고 심하면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⑤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공기, 냄새, 습도 등을 유지해야 한다. 좋은 授業空間이 되려면 환기도 중요하다. 60% 정도의 상대습도를 유지하고, 불쾌한 냄새나 대기오염 물질이 제거된 신선한 산소의 공급이 필요하다.

⑥ 교수와 학생들이 授業을 진행하는 場에서 소용되는 기본시설과 교재의 교구들을 활용

할 수 있는 시설이 적절히 갖추어져야 한다. 현대의 授業에는 다양한 機·教材가 동원된다.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칠판, 패드, 녹음기, VTR, 환동기, 컴퓨터 등이 있다. 이러한 시청각 機資材들을 필요에 따라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⑦ 교수와 학생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 안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授業空間은 교수와 학생들에게 균형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넉넉하고 짜임새 있는 공간은 학습자들의 편의성에서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턱없이 좁거나 필요없이 넓은 공간도 문제다. 이는 授業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많은 활동을 필요로 한다든지 그룹활동을 필요로 하는 授業은 넓은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반대로 조용히 강의만 듣는 授業形態에서는 학생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만 확보되면 좋을 것이다.

한편, 심리적 측면에서 좋은 授業環境이란 교수와 학생들이 수업활동중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環境條件을 말한다. 심리적 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심리적 측면에서 좋은 授業環境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들이 없어야 한다.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는 것은 授業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고 오히려 수업에 장애가 되는 시각적·청각적 요소들이 교수와 학생들을 자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요소들 중에는 授業場에 비치된 확성기 소리, 낡은 마루바닥이나 책 걸상에서 나는 소리, 불량 백목이 내는 소리, 불필요한 실내 장식물이나 돌출된 부분, 게시물, 조화를 잃은 채색 등이 포함된다.

② 안락하고 쾌적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안락하고 쾌적한 기분을 유지하려면 물리적 環境이 두루 제대로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공간의 미적 조화가 중요하다. 기능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보면 미적인 조화와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는 것이다.

③ 정신적 피로감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야 한다. 기분이 좋으면 그만큼 피로도 덜 느낀다. 반대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크면 그만큼 능력도 저하되고, 피로도 빨리 오게 된다. 그러나 기

본이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떤 環境이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는 공간이면 될 것이다.

3. 우리 대학의 授業環境 實態

우리나라 대학의 授業環境 實態는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할 필요도 없이 한마디로 열악하기 그지없다.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학의 授業環境이 양호하다고 評한 사람은 없을 것이며, 어떤 대학의 경우도 바람직한 授業環境이 갖추어져 있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보면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보다는 물리적 環境與件은 낫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결코 초·중등학교의 교실보다 대학의 授業環境이 더 낫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授業環境은 授業에 활용되는 공간에 대한 環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授業活動에 활용되는 공간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강의실이며, 실험실습실, 세미나룸, 체육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授業環境 實態를 살펴 볼 때 도편의상 물리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리적 측면에서 대학의 授業環境은 授業空間의 다양성과 융통성의 결여, 건강과 위생적 측면의 미비, 안전성과 쾌적성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우선 授業空間이 다양한 授業形態를 소화하기에 미흡하다. 이 말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명목상 대강의실, 소강의실, 세미나룸, 계단식 강의실 등을 끌고루 갖추고 있어서 외형상으로는 다양하나, 우선 그 숫자가 크게 부족하고 적절할 실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강의실 배정도 수강학생들의 수에 따라 배정되기 때문에 실제 授業狀況에서의 授業形態의 다양성에는 전혀 대비하기 어렵다. 예컨대, 두 시간짜리 授業이라면 한 시간은 그룹토의식으로 진행하고 한 시간은 강의식으로 진행하고 싶어도 강의실의 구조가 적절치 못해 강의식으로만 授業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授業에는 여러 가지 시청각 機資材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 강의실이 보조자료 활용을 위한 지원체제도 미흡하거나 강의실에 설치할 수 있는 기본 설비도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강의가 책과 칠판만을 활용하며, 기껏해야 마이크 정도가 활용될 뿐이다.

건강과 위생 측면에서도 우선 강의실의 밝기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학생들의 시력 장애를 유발하게 되며, 냉난방이나 습도, 환기 등은 아예 고려되지도 않는다. 게다가 낡아서 백겨거리는 교단과 교탁, 책걸상, 닳아빠진 칠판 등은 교수와 학생들의 신경을 자극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학 강의실은 쾌적성과는 거리가 멀며, 좁은 강의실은 안전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대개의 대학들이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강의실을 쪼개거나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도록 책걸상을 붙여놓고 있어서 안전성이 줄어들고 있다.

한편, 대학의 교내방송도 授業環境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授業은 별도의 점심시간 없이 진행되는데 교내방송은 12시만 되면 시작된다. 그밖에도 체육장과 강의실의 거리가 가까운데다가 강의실에 방음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학현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학의 授業環境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심리적 측면이다. 즉, 이른바 운동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도 때도 없는 시위행렬이 강의실 주변을 맴돌면서 쟁과리를 울리고 구호를 외치는 통에 강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강의실 벽과 유리창, 심지어 칠판에까지 부착물들이 난산하게 붙어 있어서 학생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있다.

일부 버릇없는 학생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들락거리기도 하며, 수강학생 수에 비해 너무 큰 강의실을 배정받으면 학생들이 뒤쪽으로만 몰려 앉기 때문에 늘 앞쪽은 텅 비어있는 꼴사나운 풍경도 좋은 授業環境이라 할 수 없다.

간혹 교수들 가운데는 강의중에 담배를 피우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일종의 멋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授業環境을 해치는 것이다. 그

리고 교수들이 지나치게 멋을 의식하여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하면 그것도 학생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4. 授業環境 改善을 위한 處方

문제점이 밝혀진 이상 개선방향은 지절로 드러난 셈이며 방법도 분명하다. 다만 시급히 대책을 세워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따름이다. 좋은 授業環境은 대학의 秀越性を 보장하기 위한 첩경이다. 대학의 質은 授業環境의 質과 비례한다. 불행하게도 오늘의 우리나라 대학들이 사회적 또는 국제적으로 그 質을 인정받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그 중요한 원인은 授業環境의 質 低下에 있다.

바람직한 授業環境이 교수와 학생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느낌을 주고, 授業活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므로써 授業의 능률을 높이며, 授業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授業環境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물리적 측면에서의 環境改善과 심리적 측면에서의 環境改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리적 측면에서의 環境改善은 주로 授業活動의 편의시설을 갖추는 일과 교수와 학생들의 신체적 피로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授業活動의 대부분이 강의실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강의실을 중심으로 물리적 측면에서 개선할 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의실의 조명은 기준치인 30~40烛광을 유지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둘째, 강의실의 기온이 섭씨 16~26° 사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강의실의 방음장치가 제대로 되어 바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야 하며, 동시에 실내에서의 소리 울림도 막아야 한다. 넷째, 강의실에는 각종 시청각 기자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커튼, VTR, 스크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강의실의 크기는 보다 다양하게 하되, 활용의 융통성을 크게 해야 한다.

심리적 측면에서의 강의실 環境改善은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강의실의 시설물 배치는 편의성과 아울러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美的 感覺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강의실 안의 授業과 관련이 없는 각종 부착물은 제거되어야 한다. 셋째, 강의실 배정은 수강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를 선택함으로써 불필요한 공간이 너무 많지 않게 해야 한다.

한편, 授業의 質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강의실 外的 조건으로는 授業이 진행되는 동안 캠퍼스 안에서 펼쳐지는 각종 시위가 철저히 규제되어야 하며, 교내방송 시간도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록 授業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이라도 다른 授業에 지장을 주는 것이라면 규제되어야 한다.

5. 맺는 말

우리나라 대학의 授業環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수업환경이 授業의 質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열악한 수업환경은 결과적으로 대학의 수월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공신력을 실추 시킴으로써 敎育力의 약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대학의 수업환경 부실은 대학당국의 투자소홀에 가장 큰 원인이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대학인들의 지나친 현실참여 의식과 대학교수들의 무관심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일부 대학생들이 대다수의 수업활동을 무시하고 소란을 피우며 정치적 구호를 외쳐대는 것이나, 그것을 방관하는 교수들의 무관심도 수업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인 것이다.

다행히 최근에 급격히 줄어든 시위로 대학은 안정을 되찾고 있으나, 만약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사회가 불안할 때마다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학원 내의 횡포도 계속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이유에서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캠퍼스 안에서 자행된다는 것은 비극이다. 명분은 나라를 위하고 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지만, 과연 대학에서 수업활동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일이 작은 일이며,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과거한 시위보다 수업환경의 훼손이 과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일까? ■